

고려불화의 '진미' 맛보세요

통도사박물관, '日 가가미진자 수월관음도' 전시

현존 고려불화 가운데 가장 크고 뛰어난 한국불교 회화의 백미로 꼽히는 일본 가가미진자(鏡神社) 수월관음도가 통도사에서 전시된다.



가가미진자 고려 수월관음도

통도사성보박물관(관장 범하)은 최근 4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 '일본 가가미진자 고려 수월관음도'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수월관음도는 고려시대(1310년), 419.5cm*252.2cm 크기로 비단 채색으로 제작된 것으로, 현재 일본 중요문화재로 지정돼 사가현 현립박물관에 기탁보관중이다. 한국에서는 1995년 호암갤러리에서 열린 '대 고려국보전' 이후 15년 여만의 전시다. 통도사성보박물관은 수월관음도 전시기반 공개특강도 마련했다. 국내 고려불화의 최고 권위자인

정우택 교수(동국대)가 '고려 관음보살에 대하여'를 주제로 펼칠 특강은 5월 7일 오후 2시부터 통도사성보박물관 문화센터에서 진행된다.

같은 장소에서 8~9일 통도사 수월관음도 전시를 기념한 제13회 불교미술학회 학술대회도 열린다. 행사에는 정은우 교수(동아대), 소현숙 교수(원광대), 강희정 교수(서울대) 등 국내 학자를 비롯해 히로노 세이지 박사(동경국립문화재연구소)가 관음보살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통도사성보박물관 기증실과 기획전시실에서는 8월 30일까지 신관 개관 10주년 기념 특별전 '통도사의 계단과 장엄의식구'도 열리고 있다. (055)382-1001

조동섭 기자

천고에 자취 감춘 학

깊고 높은 정신을 말하다

월정사, '한암사상과 조계종...' 세미나 5월 7일 개최

조계종 초대 종정을 역임하며 근세 제도불교를 확립한 한암 선사(1876~1951).

서울 봉은사 조실을 지내던 1925년, 선사는 "천고에 자취를 감춘 학이 될지언정 삼춘(三春)의 말 잘 하는 앵무새의 재주는 배우지 않겠다"는 말과 함께 오대산으로 들어갔다. 27년간 바깥 출입 없이 정진했던 한암 선사를 두고 일본의 사토 스님은 "일본에서도 볼 수 없는 도인이요, 세계에서 들도 없는 인텔"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한암 선사는 한국전쟁 당시 법당을 불태우려는 국군을 막아서 상원사 법당을 지키는 등 출가자의 울골은 기개를 펼친 근현대의 선지식이다. 하지만 그 수행력과 기개에도 불구하고 선사는 스승

사의 간화선'에서 한암 선사 선문답의 백미인 '선문답 21조'를 통해 선사의 선사상을 고찰했다. '선문답 21조'는 한 수좌가 물은 21가지에 대해 한암 선사가 즉각각각 답변해 기록한 것이다. 스님은 "선문답 21조"는 전·



한암 선사 진영

승가오직과 조계종의 신행'을 통해 오대산 기증인 '승가오직'을 학술적으로 재조명했다.

승가오직은 한암 선사가 "모름지기 수행자란 잠선, 염불, 간경, 의식, 가람수호 등 5가지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적어도 이중 한 가지는 꼭 해야 한다"고 원칙을 세운 것이다.

신 교수는 "한암 선사가 승가오직에서 간화선 이외의 폭 넓은 소양을 요구했지만 그 근간은 간화선이었다"며 "현재 조계종이 선종을 표어처럼 외치면서 출가자들의 의식, 간경, 염불은 황폐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규택 교수는 "불교계의 기록권을 장악한 조계종이 한암 선사의 승가오직 등을 표본 삼아 세시대를 향도하는 불교수행 기풍



인경 스님(동방불교대학원대학), 윤창화 민족사 대표, 김광성 부천대 교수, 김호성 동국대 교수, 신규택 연세대 교수

경려 선사나 도반 만공 스님과 달리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잠선, 염불, 간경, 의식, 가람수호 등 승가오직을 통해 출가자를 경책했던 한암 선사의 사상을 재조명하는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끈다.

월정사(주지 정념)는 5월 7일 오후 1시부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한암사상과 조계종의 정체성'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인경 스님(동방불교대학원대학) 신규택 교수(연세대) 김광성 교수(부천대) 김호성 교수(동국대) 윤창화 대표(민족사) 등이 발표한다.

인경 스님은 주제발표 '한암선

후편으로 나뉘어져 전편은 일반인을 위한 안내서, 후편은 조사로서의 본래면목을 보여주고 있다"며 "대오'와 '증득'을 구별하고 '보임'의 과정을 설정하는 등 대혜나 몽산과 같은 돈오점수의 계통을 잇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경 스님은 "<기신론>의 생령심과 진여심이라는 마음의 이해방식을 채택함은 물론, 화두의 잠구과정을 공적(空寂)과 영지(靈知)라는 관점에서 해명한 점, 반조와 간화를 상호보완 관계로 설명한 점 등은 한암 선사가 보조, 나옹으로 이어진 한국 간화선 전통의 충실한 계승자임을 밝히는 것"이라 주장했다.

신규택 교수는 '한암 선사의

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광성 교수는 "한암의 종조관도의국사'에서 '도의 국사를 종조로 내세우면서 수좌중심적, 선종 중심적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강했다"며 "최초로 도의 국사를 조계종 종조로 주장한 한암의 종조관을 유의한다면 부정성은 재고의 여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한편, 행사 전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정념 스님은 "오늘날 불교계가 시대적 혼란을 겪고 있는 때 조계종 초대 종정인 한암 선사의 수행가풍을 재조명하는 것은 뜻 깊은 일일 것"이라며 "종풍을 바로 세우 불교가 사회의 밝은 등불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제천 점말동굴 '아기부처님' 공개

충북문화재연, '새로운 탄생' 의미 조명

제천 점말동굴(충북기념물 제116호)은 구석기 시대 화석이 대량 출토됐던 유적이다. 1979년 발굴 당시 발견된 석조탄생불이 30년 만에 처음 공개돼 눈길을 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은 4월 28일 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불'에서 '화랑의 장 점말동굴, 그 새로운 탄생'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에서 김춘실 교수(충북대)는 주제발표 '제천 점말동굴 광장 출토 석조탄생불의 고찰'에서 석조탄생불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점말동굴 석조탄생불은 전체높이 17.3cm, 하부 폭 9.4cm, 상 높이 11.2cm, 대좌의 앞뒤 폭 6.8cm 크기다. 발굴 당시 대좌 부분이 깨진 상태로 발견됐으나 현재는 집착 복원됐다.

김 교수는 "불상은 통일신라 말기에 고려통일기에 조성됐을 것"이라며 "이는 점말동굴유적이 구석기 시대 뿐 아니라 역사시대에서도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통일신라시대 말이나 고려시대 전반에는 사람이 들어서기도 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춘실 교수는 "광배와 연화대좌의 폭이 넓어서 예배상으로서의 안정된 형태를 보이고, 전체적으로 신체의 양감이 부드럽고 대좌 등의 조각수법이 뛰어나 일반적인 금동불상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며 "점말동굴 석조탄생불은 일반적인 금동탄생불상에 비해 매우 정교하고 독창적인 표현양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동섭 기자

영동 영국사 극락전 연내 복원

영동군, 5억 예산 계획, 기공식 가져

신라시대 고찰 영동군 영국사(주지 청원) 극락전이 복원된다.

충북 영동군(군수 정구복)은 4월 30일 '영국사 극락전 기공식'을 봉행했다. 행사에서 영동군은 올해 말까지 5억원을 들여 영국사(영동군 양산면 누교리) 대웅전 뒤 공터에 196.3㎡ 규모의 극락전을 복원한다고 발표했다.

영동군은 영국사 복원을 위한 발굴조사에 나서 대웅전 뒤 공터에서 극락전과 지장전 등 불전이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터를 발굴한 바 있다.

영국사는 신라 문무왕 8년 원각국사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령 1000년을 넘긴 은행나무(천연기념물 제223호)와 원각국사비(보물 제534호), 부도(보물 제532호), 3층석탑(보물 제533호), 땅방울 3층탑(보물 제535호) 등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영동군 관계자는 "이번 극락전 복원을 계기로 이후 지장전 등 사라진 불전을 복원하면 1000년 전 위엄 있는 사찰 모습을 어느 정도 되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경주 남산 염불사지석탑 복원

경주 남산 염불사지석탑이 복원됐다.

경주시(시장 백상승)는 5월 4일 염불사지에서 '염불사지 동·서 삼층석탑 복원 준공식 및 사리법신 봉안식'을 봉행했다.

불교부장관 및 문화재위원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이번 봉안식에서는 사리 2과와 불상 및 불화, 불경 등을 복원된 염불사지 동·서 삼층석탑에 봉안했다.

김진성 기자

"금동사리호서 유리제 사리병 확인"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사 성과'

익산 미륵사지석탑(국보 제11호) 출토 금동사리호서 유리제사리병이 확인됐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건, 이하 연구소)는 4월 23일 미륵사지석탑 출토 금동사리호 개봉·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유리질파편이 '유리제사리병'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사리병은 구연부(口緣部)와 뚜껑 외에는 형태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얇고 수십 개의 작은 파편으로 잔존하고 있으며 질은 갈색을 띠고 있다. 구연부가 가장 두터우며(두께 0.26~0.32mm, 구경 4mm) 얇은 파편들의 두께는 0.11~0.12mm다.

연구소 유재은 학예연구관(복원기술연구실)은 "구조확인을 위한 비파괴분석을 실시한 결과, 파편들은 구소(Si) 등을 주성분으로 하며, 심한 풍·수화로 인해 중간 박리가 진행됐음을 확인했다"며 "연구소에서

는 향후 사리병을 비롯한 미륵사지석탑 출토 사리장엄 유물에 대한 보존처리는 물론이고 제작기법 등 과학적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3월 31일 진행된 미륵사지석탑 출토 금동사리호 개봉·조사에서는 사리 12과와 금제사리내호 등이 발견된 바 있다.

한편, 마한·백제문화연구소(소장 최완규)와 백제학회(회장 양기석)는 4월 24~25일 전북도청에서 '대발견 사리장엄! 미륵사의 재조명'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서 이송란 박사(문화재청)는 사리장엄구 중 금동제 사리외호 제작 방법에 대해 "목 틀레 용기선이나 목레 부분의 2줄 음각선 등은 녹로를 이용해 표면을 질삭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고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조동섭 · 김진성 기자

"부처님과 함께 희망과 용기를"

대한불교 천태종 서울 관문사

주지 김영제

총무 김진철
재무 유대명
노전 윤덕준

신도회장 이금복

고문 권영철 권무원 배두출 백영기 송대현
부회장 김옥동 김숙일 총무위원 최재구
교무위원 윤윤식 재무위원 이상원 김연옥 최현
조직위원 서양원 기획위원 오덕근
홍보위원 신면관 섭외위원 김진철
부녀위원 이상임 사십위원 김광자
지도위원 정유성 정기수 신선숙 최선화 방경자

서울특별시 중구 유엔동 56번지 전화(02)3460-5300 팩스(02)3460-5200 www.gwanmunsa.co.kr

제18회 행원문화상 수상자를 찾습니다

본 재단은 불교문화 부흥과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역경과 예술분야에 공로가 크신 분을 발굴하여 시상하고 중앙승가대학 학인스님과 불자 고등학생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는 공의 재단으로 아래와 같이 제18회 행원문화상을 시상코자 하오니 널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상 부문	시 상 내 용	인원	상금
역경상	대장경을 비롯해 중요한 불교문헌을 현대어로 번역하신 분	1명	각 500만원
예술상	1. 불교사상을 토대로 한 예술(음악, 미술, 연극, 무용)분야에서 업적을 이룬신 분(서화 부문 제외) 2. 방송, 연예활동을 통해 불교사상을 선양 홍보하고 대중교화(포교)에 이바지하신 분	1명	

2. 시상 일
2009년 9월 24일 목요일

3. 후보자 제출 서류
제출서류 : 본인신청 또는 추천서(소정양식) 1부
이력서(명함판사진 2매) 1부
공적서 및 증빙자료(최근 2년 이내 실적물) 1부

4. 접수처 및 접수 방법
① 접 수 처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3-67 강남종합상가 10동 401호 재단 사무국 (우 137-877)
② 접수 마감 : 2009년 6월 30일
③ 접수 방법 : 직접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접수마감일 소인에 한함)

5. 수상자 발표
2009년 8월 중순 / 개별 통지 및 불교계 언론매체 발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단 사무국 ☎ 02)586-6521~2, fax 02)521-9948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財團 行願文化財團
法人 理事長 朱永云